



(사진 왼쪽 좌로부터 권대득, 한세희, 이종희서무과장, 현기봉서무계장, 최성현, 밑줄 좌로부터 최지연, 김양연, 박은미)



☞서울특별시지부 서무과☞

항시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자랑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면 박은미씨가 소중하게 끓인 커피를 마시면서 이종희과장님의 일일결산으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서울시지부 서무과.

전통적인 충청도 양반가문의 뼈대있는 후손인 이과장님은 언제나 중후한 멋을 풍기는 중년신사로서 프랑스의 영화배우

장가방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멋진 인물. 그러나 업무지도에서는 꼼꼼하고 섬세한 면도 지니고 있는 과장님 이시기도 하다. 해병대출신의 한세희씨. 마치 영화의 액션배우같은 날카로운면도 있지만 멜러드라마 주인공 같은 따뜻한 인상을 풍기는 멋쟁이. 많은 경리장부와 일치, 소모품, 은행업무 등 바쁜 업무속

에서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그의 능력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또한, 한세희씨는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는 여드름을 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진파이기도 하다.

김양연씨. 긴머리를 과머하여 머리카락속에 파묻힌 얼굴이 매력만점인 미혼의 여인. 모든 경리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김양연씨는 항상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년 25세의 미혼여성(?). 그리고 김양연씨를 도와 우리과 살림을 맡은 박은미씨. 자그마한 타자기와 하루종일 싸우는 타이피스트.

손가락이 안보일 정도로 빠르게 치면 서도 한자의 오자도 생기게 하지않는 것이 타자기에 대한 박은미양의 좌우명. 남자직원들이 짓궂은 농담을 한마디하면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순진한 여인이다. 이호근씨. 우리 서무과에서 최고의 고령자이신 이기사님은 언제나 말이 없으시기로 유명하시다. 매일매일의 출장에도 피곤함을 모르는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이기사님은 영화배우 안소니 퀸을 연상하면 된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희태씨. 언제나 차분하고, 사려깊은 행동으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김희태씨는 20년이상을 근무해온 오랜 식구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기사님은 순박하면서도, 서민적인면을 풍기는 것이 강점이다. 그리고 서울시지부의 앰블런스를 가지고 서울시에 구석구석을 누비는 영동 멋쟁이 신사 최성현씨. 서글서글한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최성현씨는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협회 축구팀의 센터포드를 맡고 있어 여직원들로부터 인기가 Best인 최성현씨는 여직원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순진파이기도 하다.

또한 검진버스를 움직이는 권대득씨. 몸무게 80kg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식사만이 자신을 움직인다고 말을 하면서 잡채밥 찜뽕기를 좋아하는 시골풍의 남자. 그러나 언제나 덩치에 안맞는 유모어 감각을 지닌 권대득씨. 코미디언 한주열씨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인상이지만 순수하고, 순박한 면을 가진 멋쟁이다. 그리고 우리 협회의 구석구석을 매일 같이 청결하게 가꾸고 있는 김창란씨. 젊은직원들이 담배꽂초를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다 버리면 야단도 치는 우리 서울시지부의 시어머니 역할도 하고 있는 김창란씨의 수더분한 인상과 검소한 생활은 모든 직원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 서무과의 꽃인 최지연씨. 입사한지 며칠 안되지만 벌써부터 빼어난 미모와 차분한 인상이 우리 서무과를 향시 밝게 해준다. 입사하자마자 총각직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한 최지연씨는 우리 서무과의 막내이자 마스코트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리 서무과직원들은 항상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일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필자=현기봉 서무계장)